

평화를 품은 집

운영 안내

[문 여는 시간]

10월~3월: 오전 10시 - 오후 5시 / 4월~9월: 오전 10시 - 오후 6시

*문 닫기 30분 전에는 입장해 주세요.

[휴관일]

명절(설·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 1월~2월

*1월~2월은 평화를 품은 집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단 사전 예약시 이용 가능)

*북카페 SORA Bread는 1월~2월에도 문을 엽니다.

[입장료]

* 평화도서관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과 다락갤러리는 유료 시설입니다. (10세 이상 3,000원 - 단체 10명 이상 2,000원)

* 평화를 품은 집 친구 회원은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 안내

[평화를 품은 집 단체 견학]

-10인 이상 단체 방문은 미리 예약해 주세요.

-단체 견학 프로그램을 원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 입장료와 별도의 프로그램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 다락갤러리 전시 해설을 원하는 경우 미리 말씀해 주세요.

[영화 상영 예약]

-평화를 품은 집 홈페이지(<http://www.nestofpeace.com>)의 평품소극장 소식에서

영화 상영 시간표를 참고하시고 미리 전화(031-953-1625)로 예약해 주세요.

대관 안내

워크숍, 모임 등의 이유로 대관을 원하실 때에는 적어도 2주 전에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빔프로젝터나 마이크 등의 장비를 이용하시려면 사전에 미리 알려 주세요.)

회원안내

평화를 품은 집은 여러분의 후원과 기부, 재능후원, 자원활동으로 운영됩니다.

[친구 회원]

CMS를 통해 월 2,000원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습니다.

평화를 품은 집 친구가 되시면

평화를 품은 집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화도서관,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 평품소극장, 다락갤러리)

뉴스레터를 보내 드립니다.

평화를 품은 집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기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평화를 품은 집을 만들어 가는 데 나누어 주세요.

관련 도서 및 자료 / 먹거리 / 비품 / 시설물 / 기부금

[재능후원과 자원활동]

저마다 지닌 소중한 능력을 나누어 주세요.

도서 정리 / 번역·통역 활동 / 홈페이지 관리 / 교육 활동 / 뉴스레터 제작 / 자료 제작

*자세한 내용은 031-953-1625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지는 한술제지 미스틱909를 후원받아 제작했습니다.

평화를 품은 집 | 2015년 1월 26일 발행 | 비매품 | 디지털 전통설 | 발행인 황수경



평화도서관
평화를 품은 집

제노사이드역사자료관

다락갤러리
평화를 품은 집

평품소극장
평화를 품은 집

413-883 경기도 파주시 파평산로 389번길 42-19 (파평면 두포리 127-19)

T. 031-953-1625 | F. 031-953-1626 | E. nest@nestofpeace.com | <http://www.nestofpeace.com>

2014년 평화를 품은 집 발자취

2014년 겨울..

첫눈이 진눈깨비처럼 내리더니 이내 다음날 아침, 빙판이 되었습니다.

3주간, 꼬박 차를 아래에 세워놓고 걸어 올라오며 한겨울에 땀을 흘려보았습니다.
그런 두포리에 2014년을 함께 보내고자 여러 분들이 찾아 주셨습니다.
그 춥고 미끄러운 길을 마다않고 숨을 헉헉대며 방문해 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추억, 재미있는 기억이 될 거라며 한바탕 웃고 가셨지요.
또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만나야 한다며 친정집 찾는 기분으로 오셨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셔서 많은 이야기 풀어 놓고 가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정신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이라 했던가요?

평화도서관으로 공간을 옮기면서 책을 싸들고 이리저리 옮기고 추리고... 정리하고...
그 많은 성가신 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들어 주시거나 애정 어린 마음으로
후원을 이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정말 고마운 말씀 전합니다.
꿈꾸는 교실이 먼 추억 속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평화도서관으로 새롭게 시작한 것이란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꿈꾸는 교실이 처음 시작했을 때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셨던 여러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평화도서관도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갖고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식구 모두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제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어른, 아이가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 각자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가족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평화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로부터 가족,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뜻한 일들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건강한 한 해 되길 기원합니다.

평화를 품은 집 식구 올림



1월 9일 경기도 작은도서관 축제 참가

1월 24일 꿈꾸는 교실 자원 활동가들 평화도서관 방문

2월 꿈꾸는 교실 방학프로그램 진행

3월 어린이 동아리 시작

4월 꿈꾸는 교실의 평화 관련 도서를 두포리 평화도서관으로 옮기기

5월 18일 '다시 5월을 생각하며' 모임 가짐
- 5·18 도서 전시, 영화제, 오월의 노래 공연

6월 14일 북카페 소라브레드 문 열 - 이시백 작가와 북콘서트

6월 15일 '평화를 품은 집' 제노사이드/평화 워크숍
- 뉴저지 주에서의 홀로코스트/평화 교육은 어떻게 하는가?

7월 5일 평화도서관 문 열 - '평화도서관에 바란다' 간담회

8월 23일 다락갤러리 문 열. - '닥종이 인형으로 만나는 위안부'전

9월 27일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 문 열

9월 27일 '평화를 품은 집' 전체 문 열

10월 29일 꿈꾸는 교실이 나머지 책과 함께 평화도서관으로 이사

12월 3월에 시작한 어린이 동아리 종강

12월 27일 난징을 기억하며 - 난징 영화제, 김창규 교수님 강연

12월 27일 일손의 날 - 2014년 평화도서관의 일손이 되어 준
자원 활동가들과 함께 송년회



평화를 품은 집 소식

6.14

북카페 오픈

북카페 SORA Bread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화를 품은집(이하 평품집)의 첫 행사였습니다. 북카페 SORA Bread는 우리밀로 만든 천연발효빵과 향긋한 핸드드립 커피, 건강차를 마실 수 있는 평화를 품은 집의 작은 쉼터입니다.

6월 14일, 카페 주인장은 분주히 만든 빵, 쿠키, 향기 그윽한 핸드드립 커피와 더치커피를 선보였고, 평품집 식구들은 오신 손님들을 위한 정성스러운 잔치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북카페 문 여는 행사로 소설가 이시백 선생님을 모시고 북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시백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던 시절의 이야기인 '도토리에 새긴 거짓말' (2015년 그림책으로 출간 예정)을 소개해 주셨고, 선생님의 학창 시절 이야기, 평화를 품은 집에서 품어야 할 평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도토리에 소원을 적어 나뭇가지에 달아 보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북카페 행사를 앞두고 파평초등학교 학부모와 아이들 40여 명이 평품집에 찾아왔습니다. 파평초등학교는 두포리의 작은 학교입니다. 마을에 도서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도서관 선생님들께서 『틱톡 일어나세요!』를 재미있게 읽어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이 너무 예뻐습니다.



6.15

제노사이드/평화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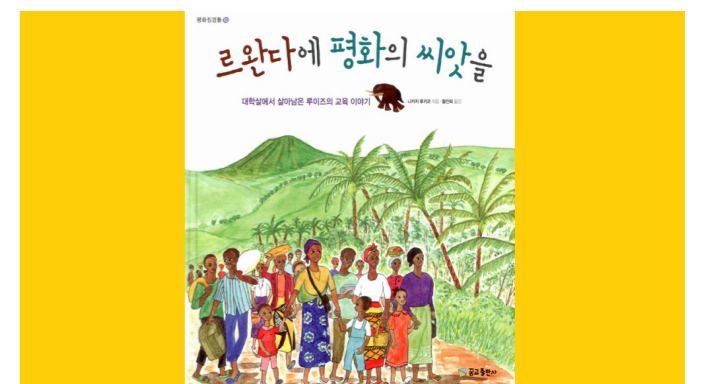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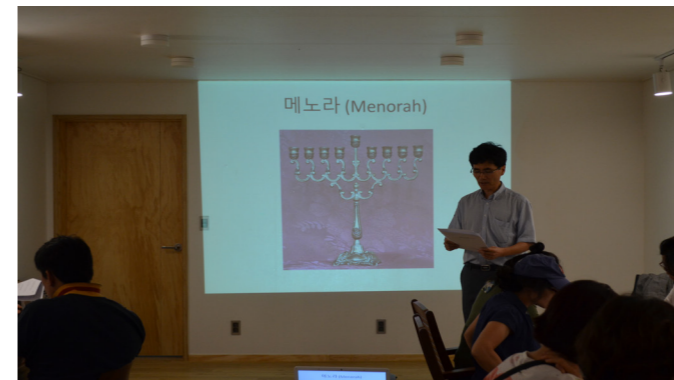
평화를 품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6월 15일, 평화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뉴저지 주에서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제노사이드 방지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제노사이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보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알맞은 교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는 뉴저지 라이더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오세웅 교수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라이더대학 부속 홀로코스트 연구소의 프로그램과 자료들을 소개해 주신 덕에 보다 알찬 워크숍이 될 수 있었습니다.

워크숍 후반부에는 참여해 주신 분들이 모둠을 나누어 교안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는 '르완다 제노사이드'로 잡았고, 『르완다에 평화의 씨앗을』이라는 책을 이용해 어떻게 아이들을 만나면 좋을지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르완다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하려면 먼저 르완다의 문화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견,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상 자료나 그림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용어 사전을 만들자는 의견, 역할 놀이를 해 보자는 의견, 르완다에 평화의 메시지를 적어 보내자는 의견 등 다양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평화를 품은 집 소식

7.5

평화도서관 오픈

평화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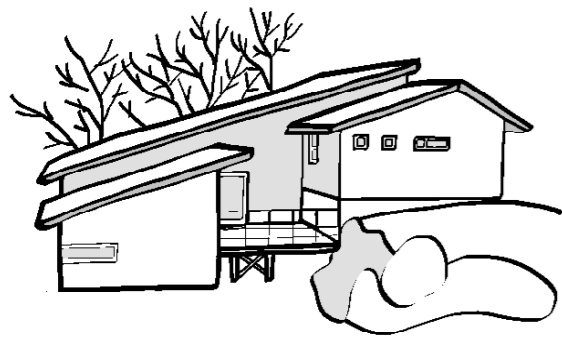
2014년 7월 5일, 평화도서관 문 여는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오전 10시, 1부에서는 ‘평화도서관에 바란다’는 주제로 앞으로 평화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평화를 고민하는 어린이책/그림책 작가 선생님, 문헌정보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 그림책 카페를 운영하시는 선생님, 파주시 도서관 정책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꿈꾸는 교실을 지켜 주신 사서 선생님 등 평화도서관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주신 소중한 말씀과 충고를 귀담아 듣고 평화도서관을 건강하게 이끌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주신 소중한 말씀

- 지역성을 지닌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할 하기
- 파주 관내 특성화 도서관으로서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 특성화 도서관답게 관련 논문 등 국내·외 자료를 갖추기
- 운영에 대한 걱정과 지원에 대한 이야기
- 다양한 평화 프로그램(토론회 워크숍 등) 확보
- 다른 도서관과 연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2부에서는 지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자들, 꿈꾸는 교실을 이용해 주셨던 분들과 아이들 150명 정도가 평화도서관을 찾아 주셨습니다. 평포소극장에서 그동안 꿈꾸는 교실에 발자취를 남긴 활동가와 이용자들의 사진 슬라이드를 상영하였고 엄지선 선생님과 함께 숲속 보물찾기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찾은 숲속 보물로 예쁜 열쇠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평화 타일 만들기도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평화는?’ ‘평화는 어떤 모양일까?’ 하는 질문에,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평화를 나무 타일 위에 정성스럽게 그려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만들어 준 평화 타일을 모아 평화도서관의 한쪽 벽을 채웠습니다. (타일을 만든 친구들은 자기의 타일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구경 오세요.)

평화도서관 문 여는 행사에는 지원숙 선생님의 그림책 읽어 주는 시간과 유진희 선생님과 어린이 우쿨렐레 연주 팀의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꼬마 천사님들이 멋진 공연을 해 주었습니다. 모두들 새로운 곳에서 등지를 트는 평화도서관을 마음껏 축하해 주셨습니다.

평화도서관의 특별한 전시 만나기

‘평화를 만나는 작은 전시회’

평화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준비한 전시입니다. 평화도서관이라는 이름답게 평화그림책을 전시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막연하게 다가오는 평화를 그림책을 통해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서 마련한 전시입니다. 아이를 안고 함께 그림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 마음 속의 평화, 내가 갖고 있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예쁜 나무 타일에 나만의 평화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평화 타일 벽에서 여러 평화의 메시지를 만나 보세요.



평화를 품은 집 소식

8.23

다락갤러리 오픈

다락갤러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2014년 연초에 평화를 품은 집에서는 닥종이 인형 복식기능장이신 최옥자 선생님과 인형 작가 다섯 분에게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인형을 만들어 주실 것을 조심스럽게 부탁드렸습니다. 다행히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선생님들께서는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된 책을 읽고, 자료를 찾고, 수요집회에도 나가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한 분 한 분 닥종이로 만들면서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안타깝고 가슴 아픈 시간이었지만 그 어떤 작업보다 의미 있었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다락갤러리의 전시는 전체 다섯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안소로 끌려가기 전 우리나라 농촌의 모습, 트럭에 실려 가는 모습, 위안소 모습, 수요집회 모습 그리고 황토로 염색한 소녀상입니다.

8월 23일 열린 행사에서는 닥종이 인형을 만들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오키나와 위안소로 끌려갔던 배봉기 할머니의 이야기가 담긴 책 『빨간 기와집』을 할머니 영전에 바치는 헌정식도 진행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락갤러리 여는 날

다락종이 인형으로 만나는 일본군 위안부들과 (빨간 기와집) 출간 기념 헌정식

평화를 품은 집의 닥종이 인형은 인권 문제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잊혀져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기 위한 작은 전시 공간입니다. 강제로 혹은 거짓말에 속아 먼 타국에서 위안부 피해자가 되었던 여성들의 삶을 닥종이 인형으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또한 이날 다락갤러리 오픈에 맞추어 평화를 품은 집에서 기획하고 공교출판사에서 출간한 『빨간 기와집』을 배봉기 할머니 영전에 헌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빨간 기와집』은 일본과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알린 배봉기 할머니에 대한 삶의 기록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책을 통해 할머니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 안 된다는 생각을 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락은 집의 가장 높은 공간이자 낮은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짜 2014년 8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평화를 품은 집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로 389번길 42-19)
내용 닥종이 인형 전시 | 『빨간 기와집』 출간 기념 헌정식
문의 031-955-1625, 031-953-1628, 010-2315-3517



9.27

오전 - 제노사이드관 오픈

오후 - 평화를 품은 집 오픈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9월 27일 이른 아침,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은 전 세계의 제노사이드 사건(한 집단을 계획적으로 없애려는 의도로 벌어진 학살)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준비한 공간입니다.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에서는 르완다 제노사이드 20주년을 맞아 '퀴부카20' 추념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퀴부카20-르완다 제노사이드를 추념하는 의미로 100개의 초에 불을 밝히는 세계적인 프로젝트) 100일 동안 80만 명이 넘게 학살당했던 비극적인 일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한 분 한 분 숙연한 마음으로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20년 전에 르완다 학살에서 살아남은 아지즈 씨가 당시 이야기와 르완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를 낭송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르완다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제노사이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두포리에 터를 구한 지 11년.. 평화를 품은 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북카페 SORA Bread, 7월 평화도서관, 8월 다락갤러리, 9월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까지 하나씩 문을 열어온 평화를 품은 집이 드디어 9월 27일 문을 열었습니다.

평화를 품은 집 설계부터 시작해서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으로 이날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평평집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다난했던 사연을 들으며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기뻐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축하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 먼 곳에서 축하의 메시지 보내 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화도서관의 특별한 전시 만나기
'르완다 제노사이드 바로 알기'

평화를 품은 집 전체 문 여는 날을 맞아 평화도서관에서 새로운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불과 20년 전에 르완다에서 제노사이드(대량 학살)가 일어났다는 사실, 아시나요? 르완다를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르완다의 기후, 언어, 음식 등의 정보와 르완다에서 왜 이런 학살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준비하고 책, DVD 등을 전시했습니다. 르완다에 관한 자료가 국내에 별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책, 『ルワンダ ヴェノサイドから生まれて』 일부를 간단하게 번역해 함께 전시했습니다. 이 책은 1994년 르완다 제노사이드 당시 성폭행당한 여성들과 아이들을 주제로 한 사진집입니다. 담담한 글과 사진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평화도서관에서 르완다에 관한 전시를 보며 평화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전시는 2015년 2월까지입니다.

후원해 주신 분

나무를 심어 주신 분

(주)사계절출판사 대표 강말실소나무, 경성레배나무, 곰돌이대추나무, 김미영·이종욱자목련, 김포동화읽는어른모임1기매실나무, 노재현·조명숙단풍나무, 박현민매실나무, 박현재산수유나무, 안석희, 이병규, 정한성, 최옥미소나무, 손희경블루베리, 심경자·이정순회화나무, 오경선느티나무, 오세웅감나무, 육아리자두나무, 육근아자두나무, 이미감나무, 이서영·이현수대추나무, 정낙윤대추나무, 정용선라일락, (주)코업북로지스틱스 대표 조석현소나무, 조유미라일락, 최명희라일락, 최병기소나무

기부해 주신 분

(주)사계절출판사 대표 강말실 100만원, 권윤덕 20만원, 김상영 10만원, 김영기 10만원, 북새통 대표 김영범 10만원, 김은지 5만원, 김태영 5만원, 김태희 20만원, 김포동화모임 10만원, 김현정 5만원, 김효춘 30만원, 남궁호·박이선 10만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10만원, 두레생협 20만원, 두레생협 일과사랑방 3만원, 최삼진, 박수상 10만원, 박정순 110만원, 서동영 10만원, 서태원 1만원, 스투가목조건축사무소 20만원, 부꾸미 1기 20만원, 오세웅 100만원, 느티나무도서관 관장 박영숙 10만원, 용인 박영주 5만원, 원진축량설계 대표 유진진10만원, 이미 10만원, 토우건축설계 소장 이봉영 10만원, 이시백 10만원, 이은경 5만원, 이재란 2만원, 어린이 문화연대 대표 이주영 10만원, 이현숙 10만원, 정병규 10만원, 정용선 10만원, 조경상 10만원, 고래가숨쉬는도서관 대표 조영진 20만원, 참교육학부모회 5만원, 참교육학부모회 파주시회 5만원, 참교육학부모회고양지회 5만원, 최병기 5만원, 파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10만원, 파평교회 목사 박창호 10만원, 하안초록도서관 10만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한기호 10만원, 한춘식 10만원, 헤미항공 대표 엄기용 100만원, 황수경 5만원

물품을 기증해 주신 분

느티나무도서관 관장 박영숙(지구본), 서애경(선풍기), 목향(현판), 박경희(그림), 박수상(시계), 소미자 외(휴지, 음료), 소순덕(비누), 유진희(인형), 윤선라, 한혜원, 조석현(부엉이등), 이종배(조명), 조성두(핸드폰 액세서리), 한솔제지(종이), 황진희(세탁기)

*많은 분들이 축하 화분과 화환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음료와 휴지 등 행사 물품을 기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적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재능을 기부해 주신 분

노바건축 소장 강승희-평품집 추가 설계
김민건-홈페이지 디자인
김정민-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 전시글 교정
닥종이 인형 작가(최옥자, 황미영, 김진희, 윤병희, 이향란, 정미선)
-다락갤러리 위안부 닥종이 인형
백창훈-평화를 품은 집 문 여는 날 초대장 디자인
이미정-나무 의자 제작
이철수-평화를 품은 집 캘리그래피
이재훈-중국어 번역
조성두-홈페이지 제작
최옥미-홈페이지 원고 교정
한돌도서관 우쿨렐레 공연팀

평화를 품은 집의 일손을 덜어 주신 분

김미애, 김정민, 김태규, 남준, 명소혁, 박정실, 박찬교, 박희옥, 슬라라, 송명화, 송영희, 오현웅, 양은선, 이민지, 이재훈, 이종배, 이택규, 임경섭, 정은숙, 조형익, 지원숙, 최성환, 최옥미, 황미영

*혹시나 위 명단에서 누락된 분이 있다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원

강난숙	김은영	박정실	왕현숙	임순경	함승연
강승희	김은영	박제성	용정순	임혜숙	허 기
강은영	김은옥	박종국	원재민	장성수	허인자
강태봉	김재희	박종숙	유인창	전복례	홍성담
강효진	김지현	박준환	유정연	정기재	홍은아
고경희	김철용	박지영	유지훈	정락윤	홍지은
고정희	김택환	박찬교	유진희	정명자	황미영
권정숙	김현정	박현경	윤선라	정용선	황세림
권문혁	김혜진	박현정	윤성실	정우진	황수경
권주용	김효춘	백옥진	윤이소	정은숙	황인종
김경숙	김희은	백창화	윤현숙	정진희	황진희
김경희	남철우	서정주	유희진	조명숙	주)서정바인텍
김공희	노영주	소미자	이 강	조병익	주)에스제이피앤비
김귀분	노재현	소순덕	이경옥	조석현	
김규훈	명소혁	손주연	이경원	조영현	
김길미	명정아	송명화	이 미	조용란	
김나영	문병천	송연옥	이바다	조용식	
김동수	문향자	송영희	이병숙	조용진	
김동환	민지영	신미숙	이성희	조정원	
김명수	박경림	신봉철	이숙향	조향숙	
김미애	박경진	신수진	이순정	지원숙	
김병국	박경희	신일연	이애정	채주연	
김병훈	박기범	심승희	이은미	최선미	
김서경	박명희	안이정선	이은주	최영미	
김선숙	박소현	안진희	이정옥	최영선	
김수민	박소희	양경화	이하영	최옥미	
김수연	박수연	양은영	이항구	최 진	
김수정	박수현	양희정	이해정	하희정	
김수현	박영은	엄지선	이현숙	한명희	
김용정	박은주	오연희	이현정	한석봉	
김은미	박이선	온윤숙	이혜원	한은정	

그동안 단체로 오셨던 분들

경기북부시찰 교역자회
고양파주지역역사교사모임
군포중앙도서관
노원정보문화도서관
두레생협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들
수원참교육학부모회
인천미추홀도서관
일본생협
파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카페아마토르
파평초등학교
해솔중학교
행복어린이집 등

1945년, 오키나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름다운 만큼이나 슬픈 역사를 간직한 섬, 오키나와.

오키나와의 목소리

『오키나와의 목소리』는 전쟁의 광기가 순박하고 아름다운 섬의 자연과 사람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학살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 책은 아이들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 줄 것입니다. 씨앗은 아이들과 함께 자라나, 언젠은 불의가 평화를 것밭으로 할 때 꽃망울처럼 터질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한 그루 푸른 나무가 될 것입니다.

문정현 신부·평화운동가

마루키도시 마루키이리 글·그림 | 신명적 옮김
48쪽 | 값 14,800원

▶ 품고 출판사

